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기연
주편집인	김노재
발행처	외대신문(962-7128, 961-4151)
대외부	(961-4152, 0335-30-412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용신리 8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4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01호 1993년 3월 30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인정

제적제도, 배움의 권리 불모로 한 학원탄압 도구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른 바 3·25조치(이하 3·25조치)로 전국 제적생 복학추진위원회(이하 전복추위)의 활동이 일단락됐다. 전복추위 학생들이 민주당사 집회 농성을 전개한지 4살에 되던 지난 25일(화),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교육법 시행령의 예외조치(이하 30일 이후에도 등록 가능) 신설과 대학 학생 정원명 개정을 상정, 의결하였으나, 복학 대상자는 시국사건과 학원민주화 관련 제적생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전복추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원익(대·법학, 6·5사건 관련 제적) 등은 말한다. 전복추위는 25일(목) 민주당사를 나오며,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8일 전복추위는 '모든 제적생 완전복교 및 인왕산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완전복교의 결의를 다졌다. 25일(목) 이후 각 대학이다. 학사·미등록 제적생을 포함한 모든 제적생들을 파악하는 데 나섰으며 28일(금) 현재 파악된 숫자는 2천여명에 달한다. 또한 그간의 투쟁성과를 총화하며 제적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에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또다시 제적생이 생기지 않도록 각 대학의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학원에서 4월까지 자율적인 조치가 따라 제적 철회가 결정되면 현재 시국사건과 학원민주화에 관련하여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3·25조치의 성격과 이후 남겨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교육민주화 아직도 멀었다.
3·25조치가 발표되면서 전복추위는 민주당사 집회농성을 마무리

학사·미등록 제적생 제외한 선별복적 재고되어야 복적, 정부 은전 아닌 학생들의 권리회복 투쟁 성과물

저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것은 3·25조치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3·25조치를 두고 문인정부의 개혁의지를 순용하고 있지만, 67년의 복제주의와 거의 다를 바 없으며 권위 과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조치가 따르면 학사·미등록 제적생들의 복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복추위 부위원장 임수경(서울교대 66학번, 제적)은 3·25조치에 따르면 제적생들의 복교가 극히 부분적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며, 모든 제적생들의 완전복교가 큰 과제로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학사·미등록 제적생들의 복교 요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학사·미등록 제적생들의 수는 정계에 의한 제적생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 특히 91년 학원 안정화대책에 의해 제적 제도가 부활되

면서-학교마다 차이는 있다-학사 제적생의 수는 점점 늘어갈 전망이며, 미등록 제적생 중에도 지외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거의 없다. 미등록 제적의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 군대를 가면서 입영계를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갑작스레 바뀐 학사행정체도를 따라 등록시기를 놓친 경우, '일시방' 등으로 구속 수감되어 미등록 제적된 경우, 휴학원을 제 때 내지 못해 제적된 경우 등 학생행정의 오류로 제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모두 부당한 이유로 배움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제 때' 등록을 하지 못하면, 죽 돈을 못내면 배움의 권리를 잃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대학은 '돈'을 매개로 배우고 가르침을 계약하는 기업인 아니므로 배움의 권리가 있는 사립에겐 당연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철사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팔가지 그 사람이 책임지며 교육하고 교

육시키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은 교육적 측면에서 학사·미등록 제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제적제도의 완전철폐야말로 교육민주화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3·25조치는 정부가 던져준 떡고물입니다. 이상에서 3·25조치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또 한가지 신중하게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다. 바로 3·25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다. 역대 정권은 그 출발시기에 국민대회와의 차원에서 수감자들에게 대한 사면과 복원조치를 단행해 왔으며 제적생들에 대한 복교 조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마치 정부의 '사면'의 '은전'처럼 내려진 것이 이런 조치들이었으며 3·25조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부가 먹고살을 먼저주듯 진실소도 배주는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복추위는 지난 12월부터 '제적생 완전복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각 대학마다 복학추진위원회는 투쟁의 일선에서 민사청과 교육부 협의방문, 정치사범운동, 명동성당 신학생, 민주당사 집회농성 등을 전개하며 교육부의 민사청에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규정'을 발표할 것을 촉구해 왔다. 3월 들어 사범운동과 명동성당 단학생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전복추위의 활동은 언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민주당사 집회농성을 시위한지 3일만에 교육부와 민사청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국관련, 학내문제관련 제적생들의 전원 복적을 통해 공식발표'하였다. 3·25조치는 그동안 전복추위 활동의 성과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학부평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복귀하기에 정부의 '사면'은 더더욱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제적'은 정권층의 학원민주화만 앞설지도에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인 배움의 권리를 필요로 할 때 이라도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학원안정화 대책의 내용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 이후 학회 개정 투쟁을 원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그 성과물로 제적제도 철폐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큰 관심사도 떠오르고 있는 '양심수 강제집행 철폐투쟁'에 학원민주화 관련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호순 논설위원>

반의자

보수세력의 대학신문 길들이기

▲"사회에게 비록 최종원고 OK권은 있지만 우리에선 인쇄권과 배포권이 있던 말이야" "너희 기자들 내일 인쇄업엔 신문 못 나와 달라고"
출신보수계 언론인 출신인 92년 박스는문 계에 이어 집권신문을 또다시 제적중지시켰다. 그리고 이제 광고문제를 넘어 그들은 사선 원고 집결, 학원제한 조항 적용, 편집회의 참여, 학생편집국장제 철폐 등을 순용하며 제적생 조치가 약한듯 '사회가 변했으니 신문도 변해야 한다'며 신문사 체제를 개혁하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비추고 있다. 이는 작은 사정대학도 이원화 마스터플랜이 또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대학신문의 행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

▲대학신문의 잦은 몸살감기는 비단 전대만이 아니다. 군부권 문인시대인 아랑곳하지 않고 제단을 비탄하더니 보수세력은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학신문 길들이기'로 더욱 계보를 만지고 있다. 박막투 연중행사로 신문발행을 못해 3중우체(나) 급인가까지 취소당해 이제는 3중우체로 하는 느낌마저 주는 사정대학도, 그리고 지난 22일 조문소에서 다 작성한 원고도 학교측에 불리하다고 해서 아직 인쇄되지 못하고 있는 한성대학보가 그렇다.

이러한 단합에 대해 대학신문은 '고백'뿐만 못한 말미지에 촉매를 채워 제도하려는 것이라며 유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심정자>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언론·출판의 자유 또한 형식적이나마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수호지표라 불리는 한국사회의 대의에서 꼭 지켜져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언론행위에 대한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이를 망각한 채 어느 일방의 배타적 위치에 따른 제적조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필연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대학신문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본지가 지난 3월19일 실시한 6백호 기념신문조사에서 대상자 2백33명중 90% (88.63%)가 대학신문 제적중지사태에 대해 학교공포지수로 대학신문을 가치저하시키는 대학당국의 언론탄압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 또한 1백14명 (48.93%)이 아예했던 신문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문을 발행해야 한다고 여기는 데에서 봐도 다수 대학인의 정경적 기반이 부족한 제적중지사는 신문발행을 바라는 학내의 일반인론에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와중에 보기에 대학신문은 취재에서 신문발행까지 모든 것이 대학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대학의 공기업이며 개인이나 집단인 권위를 위해 학보의 발간을 지연시켜 대학인론에 족쇄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신문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의 원칙이며, 그로 인해 대학신문도 신문다운 질 수 있다는 것을 대학당국들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재홍>

지 면 안 내

5면: 경제개혁, 이것부터 해야한다

7면: 외대인 문화신세대와 만나다-기수 윤선애

9면: 건대학보 제적중지 사태에 대하여

11면: 양심 정치학생 총회 및 해오름식

93년 1학기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

(이문)

- 일시: 4월 1일(목) 오후 3시
장소: 노천극장
인건: 1. 중기투자계획 학생측안 제안
2.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 외대중장기발전 계획위원회와 관련한 투쟁목표 결의
3.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및 1학기 사업계획 보고



(왕산)

- 일시: 4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노천극장
인건: 1. 교육재정확보와 왕산발전을 위한 운동본부(건) 발족식
2. 등록금투쟁 상황보고와 이후 학원민주화 투쟁기조 설정
3.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및 1학기 사업계획보고

이번 정기학생총회는 외대발전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외대인이라면 참가하십시오.

남북경협, 남한 경제의 비상구·통일의 주춧돌



남고위급회담 10. 22-25

남고위급회담이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이후 2년 1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이후 2년 1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이후 2년 1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남고위급회담이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이후 2년 1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이후 2년 1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글 실는 차례

1. 경제협력 되는 세계 경제 질서
2. 유럽의 경제적 지원 변화
3. 미국주도하의 NAFTA
4.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질서
5. 경제협력화 하의 한반도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
6. 아르헨티나, 남미 등의 세계질서 재편에서의 편입과정 및 대외경제협력의 도모에 정책

1938년 창립 이후,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기업, 세계기업으로 성장해온 삼성— 삼성이 제2창업 5주년을 맞아 새로운 일과를 새로이 개시하며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한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21세기를 불과 7년 앞둔 지금, 삼성은 인제와 기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영이념
인제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삼성인의 정신
●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 세계에 도전하겠습니다.
●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 경제협력화를 분석한다 V

이 찬 행

<한국사회과학연구소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핵-경제 연계정책에서 비롯된다. 지난 해까지 남북간 경제교류는 순수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이지만, 이번 핵문제 발생에 따른 정국변동을 미처 분간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작황과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경제 전 세계적 인 탈이탈로 추세에서 각국의 이해가 여의치 않게 대립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남북경협의 급전전은 엄청난 변화다.

남북경협에 거는 우려와 불안

지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한간의 교역은 고위급회담이 진행될 90년을 고비로 급성장하여 92년 한 해동안 2억 9천 32만 7천달러로 91년 1억 9천 2백 2만 달러보다 무려 8.9%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92년 연초 김주승 대우 회장의 방북과 90년 중반 김일성 북한 무장부인 부총리의 방한 등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나 협력 등의 동향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한간의 협력증진이라는 세 지평을 열 수 있는 청신호였다.

우리의 국민들은 90년대 접어들면서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물꼬를 한편으로는 반기온 열성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느낌을 숨기지 못하지 않았다. 그 불안한 심정의 뒷배에는 보수적 대결철칙과 그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보다는 경제교류와 남북경협을 주도하는 양 당사간의 정치적 의지가 너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다.

남한의 핵-경제 연계정책 또한 남북경협 도움안데

또한 눈길을 끌고 있는 대목은 정부의 핵-경제 연계정책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남북한간 경협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대한 경협이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해 긴 에피소드를 할 수 있지만, 기업경영 전략에서건 커 시경제적인 입장에서건 시간이 갈수록 북한전국은 경제적 타당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실정이다. 일본과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시

장을 장악해 들어갈 경우 후발 관여 지로서는 남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북한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일본과 협력했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주주중립인 섬유·조선·해운·철강산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지만 반론해보면 그 해답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

민족대단결의 측면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는 북한의 남북경협

북한은 원 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본다. 북한은 오늘의 경제를 "그 심각성과 인축성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위기상황을 시인했다. 게다가 긴급성 주석은 급진 신년사에서 언급을 볼 수 없는 비장한 눈초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의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으면 결국 세사적 전환기에 전대미주

90년대에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주재하의 두만강 하구 자유무역지대 공동개발이다. 이 사업계획은 동북아시아지역 협력 프로젝트로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것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판이다. 남한당국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지원된 민족경제론에서 보거나 수년전까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구상을 강력히 비난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아시아중심의 경제외교 강화조치가 가시화된 것은 91년 부터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위기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때 따라 북한은 아시아지역 내의 협력에 관심을 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주석은 91년 신년사에서 전례없이 강도 높은 문으로 아시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북한은 아시아

가 무너질 무렵부터는 것을 인연에 게 조소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기의 식은 재조금에 아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위기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 느껴오던 것이었다. 이와관련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들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조국통일 3대원칙의 '민족대단결'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남북경협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다극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념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한 정신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가장 중요하게 대립고 있는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김정일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북의 정부원 결정으로 92년 수출확대정책은 84년 조

치가 이러한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대외경협 준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두만강 유역의 자유무역지대 등을 설정해 일본·한국기업과 협력을 추진중이다. 특히 나진·선봉지구는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이 될 입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동북아 지역의 지역경제협력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는 변화의 조짐이다. 이는 북한의 지리적 민족경제논선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결정이 분명하다. 김정일 비서기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발'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두만강 유역의 자유무역지대 등을 설정해 일본·한국기업과 협력을 추진중이다. 특히 나진·선봉지구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입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삼성이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21세기를 불과 7년 앞둔 지금, 삼성은 인제와 기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심포지움 정리-경제개혁 촉구 심포지움

경제개혁, 이것부터 해야한다

경제성장, 경제발전이 아니고 왜 '경제개혁'이 이 시대의 주요한 당면과제로 설정되고 있는가.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급진적인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지난 29일 (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국노동자대표회의(가칭) 주최로 경제개혁촉구 심포지움 '경제개혁, 이것부터 해야 한다'가 열렸다. 심포지움에 참가한 10여명의 전문가(신인호, 박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는 "자본가에게 여러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노동개혁을 시키려는 것이다"며 김영삼 정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번 심포지움의 발제자 김태우(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실명제, 사회보험(전국대 교수) -세금과 중소기업 이익전환(원광대 교수) -경제개혁과 노동조합의 역할 등이었다. 각 발제자는 각 분야의 방에서 사회개혁이 어떤 '개혁'의 논리가 수반되는지, 무엇이 실수반에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경제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수준을 제시했다.

그 중 이준에서는 김태우 교수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발제내용을 정리해 보도자 한다.

금융실명제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2년 투기국 불위를 빚었던 장영자 사건이었다. 그때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령이 시행되었던 날은 끝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 1990년 부기한 실시 약속이 연기... 그야말로 미완성이었다.

이제 금융실명제가 되려면 연인원 1천만 명을 위하하여 강제하고 싶은지, 그것이 어떤 필수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김태우 교수는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두가지 -회와 땅의 -로 구분한다. 먼저 회사의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자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종합과세의 실시를 유보하고 전체 금융 자산의 5%인 3천조 원에 다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면 부동산이 부동산 쪽으로 몰릴 염려는 없다. 또 1인당 1인분보다는 자본유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때문에 합법적인 외화도피는 크지 않을 것이고 불법적인 도피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집행으로 최소화 가능하다. 바로 이 외화도피의 가능성 때문에 실명제 실시가 시급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자본자유화가 더 진전된 뒤에는

못하도록 하는 데 한몫 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경제의 근원을 축소할 수 있다. 가맹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60%이상 과세율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맹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거래자들의 실체는 보나나나 '검은돈을 가진 사람들이고 '화양' 돈세탁을 위한 부류인 것이다. 혐의의 금융실명제라도 실시되면 그 즉시 가맹계좌를 이용한 돈세탁이 불가능해지므로 지하경제는 현저히 위축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되면 지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이 더 극성일 것이고 저금리의 해

합법적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실명제 실시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증권시장이 정상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거래자금을 통한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등이 어려워지고 증권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고 중산층이 보다 활발하게 증권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증권시장의 큰 활력이 있게 된다. 여기에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물론 증권시장을 움직이는 '돈세탁'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려는 현상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킬

는 '부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가치 지와 못 가치지의 계층갈등이 완화되고 사회불안 요인이 축소되어 금융실명제는 가치자들에게도 이득'이라는 문외파 진정론자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점 외에도 조경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정경유치의 부패를 억제할 수 있으며 심지에서는 김영삼 정권의 하락하는 신뢰도를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듯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김태우 교수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 가장 적은 적기인



경제개혁, 이것부터 해야한다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회의(가칭)

실보다 득이 많은 금융실명제 정권초기, 불경기인 '지금'이 적기

의 유출이 심해져 불경기가 심화된다'라는 주장한다. 그는 또 불경기이므로 먼저 경제를 활성화 시킨 후 나중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모자라며 특히 그것은 경제성장률이 각각 9.3%, 8.4%에 달했던 90, 91년도에도 왜 실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호황기 때에는 부동산 투기의 역효과, 저금리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기록적 세액이 정책적 영향 없이 미치는 정권 초기인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셋째, 금융실명제는 진정한 자본주의로의 필요조건이다. 기업을 하는 주주가 아닌 본인이 진정한 '기업의유'이 성장할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부추길 것이다.



시금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상깊게 기억하게 된 것은 아마도 85년의 한 사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해 가을 분단 이후 최초로 실현된 남북교향방문단은 온 국민에게 환영의 초점을 맞췄다. 9월21일 정부와 일련한 선별심사속에 선별(?)인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는 노년의 성직자 지학순주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랜 지학순주교와 평양에서 만난 사회민주화운동의 권위를 대신 맡아주던 최태우 교수의 환영은 지학순주교가 50년 한국 정권정리 원인으로 36년만에 평양의 여중생 조영숙씨와 만나는 해우정원은 그것이 정부의 북방정책의 선전효과였는지 아니면 인간애에 많은 이들의 가슴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젊은 노년의 눈물... 그때 지학순주교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어떤 역사와 어떤 삶의 역사가 담겨 있었을까.

이제 지학순주교는 다시는 우리 앞에서 절망의 의미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젠 절망이후 자신의 행적을 되짚어 보아도 후회없이 흐르는 눈물의 뜻을 찾아야겠다. 지학순주교 하면 대담 열혈한 사상을 원주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일생을 두고 모든 것을 통해 지학순주교의 강령을 펴내며, 평안지역인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공로정신에 입각한 지역사

회계발문등에 있는 힘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의 유산은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약탈과 정변으로 맞선 것은 74년 정부가 진지하게 배후 조정받았을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듬해 천주교교수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교회의 합법도 쇠망된 것이다. 그는 여전히 부활을 꿈꾸는 서서 측은 유산의 집을 베풀었다. 이후 불의에 맞서는 한 부형 양태로 자리 잡은 양심선언의 최초로 할 수 있는 지학순주교의 그해 7월23일 양심선언문에서는 "유신정권은 전리해 반되고 민주정권을 파괴하여 조국 된 것이기 때문에 부유이다"라고 찬

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에 참여해 정경 확보하는 노동자들의 보다 깊은 투쟁을 이끌었다. 이것은 활동으로 지학순주교의 절박한 눈은 갈수록 깊어지고 신도는 물론, 지역주민, 양심수와 그 가족, 그리고 수난당한 노동자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또 연인들 그들의 심자기를 함께 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없다. 그러나 그에 간여하지도 않았다. 사회에 빛을 밝히는 일이라면 노동정권도, 감옥도, 거리의 시위도, 그리고 분단의 땅도 마다하지 않았다.



명하며 이후 종교의 사회민주화운동의 광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는 오늘날 '천주교정의원전국사제단'을 창립한 지학순주교이다. 그외에도 카톨릭사제단, 학교, 병원 신·증심, 사회복지 등을 통해 종교의 사회적 봉사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72년 대동후수 이후 수해농민 '제대대사'운동에 대한 지원이 아닌 선한 소행인 내는 등을 통해 지학순주교의 양심과 정의의 이름의 발로 남을 것이다. 이외에도 '엘비스' 한국위원

이제 그들이 눈물... '이름 부둑어 안고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부어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 여자의 양심과 정의가 위태로운 이 시, 그리고 분단의 민족적 수난이 그치지 않는 이 땅... 지학순주교의 이름이 아닌 더 이 땅과 이 민족을 함께 이끈 것이다.'

소멸뒤에도 빛을 발하는 양심과 정의의 별. 지학순 주교

학술단신 ◇국제체제의 변화와 멕시코의 나프타 참가 원인

지난 3월 28일 (수) 외대 대학원 학술연구연락처에서는 '국제체제의 변화와 멕시코의 나프타(NAPTA) 참가 원인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자 박상현씨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전지구적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제3세계 민족국가들에게는 선제공격이 생존과 주지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세계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떠한가" 하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멕시코의 나프타 참가 요인을 분석하고

지 한다"며 논문의 의의를 밝혔다. 현재 국제체제의 보호주의의 경향은 세계가 갖게 된 지역경제블록화로 구분되는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FDI) 현상이 과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EC의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해외국에 대한 보호주의의 경향이 강해지고, 미국에서도 보호주의의 경향이 높아지고, 무역자유화를 폐쇄하기 위한 적당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FDI가 선진국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블록화는 개발도상국 수출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FDI의 선진국 중심의 운영은 경제발전이 필요한 지금의 부흥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들은 수출시장의 확보와 자본의 유입, 기술이전 등에 심각한 애로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GATT(GATT) 가입을 활용하여 수출의 다변화를 이루는 방법만 남는다. 그런데 멕시코 수출의 대부분은 미국에 의존해 있어 수출시장의 확보에 있어서는 미국시장이 잠정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결국 수출의 안정적 확보와 해외자본의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멕시코 지배연락은 판세계화로 인해 지장을 받는 멕시코의 경제난을 '나프타'가 해결'로 타개해 한 것'이다"며 나프타 가입을 설명했다.

YS 노믹스(YS Nomics)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언론에서 '신경제정책'이라 칭하는 말을 자주 쓰면서부터 YS 노믹스는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YS 노믹스는 지난 19일 대통령 특별취임식 1백일 계획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3백여건 YS 노믹스의 기초는 '국가적인 내용을 공급'인 것. 통화정책 확대, 행정규제 완화 등의 '국가적'과 '중소기업' 주요 개선, 기업활동 자율성 확대, 노동자 임금동등 등 중요 과제이다.

이번 경제정책으로 예상되는 것은 통화확대로 인해 물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동반할 것으로, 임금동등과 노동강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 지원 신청 안내

1993학년도 제2학기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 지원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희망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 대학교 델라웨어대학교 공동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
2. 이수과목 : 전공 및 부전공분야의 교과목을 원칙으로 함.
3. 지원기간 : 본래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소속 학과장, 학과의 지도교수에 방문 학생
 - 1학년 이상 수료자로 2학년 학생
 -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
 - TOEFL성적 500점 이상인 자(성적은 200점 이상, 해외 영어인수 성적 포함)인 자,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조건의 영어시험 합격자
 - 기타 해외여행에 결사항유가 있는 자
4. 신청기간 : 1993년 3월 22일(화) ~ 4월 23일(수)
5. 제출서류 :
 - 재학생명서 (국, 영문) 2장
 - 전학년 성적증명서(국, 영문) 1장
 - 교과목 이수계획서(학교 소장장서) 1장
 - 지정병원 발행 신체검사 소견서 1장
6. 교환기간 : 1) 1993년 9월-1994년 2월 (6개월, 1개 학기)
2) 1993년 9월-1994년 8월 (1년, 2개 학기)
7. 신청장소 : 서울캠퍼스 학생과 (TEL: 961-4033, 4035)
용인캠퍼스 학생과 (TEL: 0335-30-4036)
8. 기타 유의사항 :
 - 본 대학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완료한 후, 델라웨어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모든 장학금 제도를 받는다.
 - 신청자의 학기기간이 만료된 교환학생은 귀국비공급을 제출하고, 등록비 수납신청을 소정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교환학생은 교환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성적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기간중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교과목에 이수하지 못하여 발표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교과목 이수계획서(학교 소장장서)를 사전에 승인한 검토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1993년 3월
학생처장

하계 영어연수안내

1. 연수지역 및 연수대학 : 미국 서부 소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 연수일정 : 1) 연수출발일정 : 1993. 7. 6. 13:30 김포공항 국제기차역에서 출발 예정
1993. 7. 6. 14: 35 UA 800 김포공항 출발 예정
2) 연수귀국일정 : 1993. 7. 8. San Francisco 도착 예정
3) 연수종료 일자 : 1993. 7. 6. - 8. 12. (약 6주간 예정)
3. 견학일정 : 8월 13일: 버클리-요세미티-프레스노 견학
8월 14일: 프레스노-스태프스 견학
8월 15일: 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니언 견학
8월 16일: 그랜드캐니언- L.A. 견학
8월 17일: L.A. 견학
8월 18일: L.A. 견학
8월 19일: L.A. -로스앤젤레스 견학
8월 20일: 로스앤젤레스 견학
8월 21일: 로스앤젤레스 자유시간
8월 22일: 로스앤젤레스 견학
5. 연수경비내역 : 1) 수업료 및 신청료 : \$1,055.00
2) 숙박비(2인1실) : \$1,510.50
3) 견학비용 : \$ 83.00
4) 연수기간 중 수속관리비 : \$ 300.00
5) 항공료 및 공항 여객선비 : \$2,387.00
*예상 총 경비 : \$5,312.50
(보통대, 편의시설카드, 기숙사비, 교통비 등 제외)
6. 여행구비서류 : 상급서 세부서류 배부 및 안내 받을 것
7. 공지사항 : 버클리대학에서 직접 설명회 개최 (4월 6일 15시-17시, 시청각실 401호)
8. 기타 : 1) 경비내역은 유예금 계좌 012625-0000211 장영은 앞으로
2) 연수기간 중 27.5%의 금액을 출금할 것
3) 소요되는 사항은 신청서 뒷면 참조
4) 세부일정 및 여행계획서를 사전 숙지하여 차후 의뢰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5) 기타 자세한 것은 각 학과에서 문의할 것
서울 학생서 : TEL.961-4033, 용인 학생서 : TEL.0335-30-4033

학생처장

한국 대학교육의 대개혁을 위하여III

보도기획

대학의 자율, 대학 발전의 지름길



대학의 자치방안에 대한 정책검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권력에 빼앗긴 학원에도 자율은 찾아오는가? 새정부의 개혁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고 교육개혁안은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적 개혁이나 정치권도 제지되지 않고 있다. 단속이 마칠지 않은 정국과 오간지리에서 김대중은 "특별재난지역"을 시급히 자율을 허용한 대학문화가 학부의 권리를 침탈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여기서는 "자율적 대학운영"을 위해 새정부 개헌이후 제도와 교육정책의 일체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교육

오늘의 대학 현주소는 어디쯤인가? 권력이 총칼로 지배하던 시대, 총학생회의 소멸에도 학도호국단이 학생들을 이끌던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원들의 입을 통해 '대학 자율화'가 후퇴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아직도 대학에 진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하여 법제에서는 △교수회의의 권한 △대학 총장 임용 △정원확정권 △교수 학사운영권 전면에 관해 국가가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의 자율성, 헌법에 명시된 권리

눈치보기식 학사행정 벗어나야

대학을 자율로 운영하려면 대학 직권은 교육부 대학학부과에 수권된 총장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88년 4월 이후 '자율성'이라는 취지로 학사행정을 폐지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교육행정 확충과 자율적인 관료제도로 선행되어야 한다. 87년,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은 자율화 이전만 실제로는 사립대학의 재정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사학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부등분시기,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들을 양산해 온 것도 사실이다.

부분별한 전공의 세분화도 결국은 사립대학의 정원늘리기 에 기인한다. 정원늘림도 결국은 교육부의 권한이므로 정부에 살포인 대학은 증원을 받아 결과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을 사립대학의 필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사립대학의 부등분과 교육 1명만 확보한 채 신입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등록금 결정과정도 최근에는 발언권과 기회권, 처징권 의외에서 담합형태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형의에서 유리하게 부르는 것이 그대로 다뤄질지 등불급인상이 되어 있다.

이와 뒷받침하는 것이 학생 처징권이다. 여기서는 등록금 결정에 학생참여를 배제하기 기로 함의, 학생들이 이를 요구 할 때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의 대학의 자율화를 더 이상 보장하기 어렵는 실정이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들의 합의에 구상된 사립대학의 자율성, 재정이 인명하는 구도라고 하고 있다. 국가가 정부개혁의 가장 큰 동력이 되고 후속 개혁은 교육개혁을 생각해야 한다.

대학이 전리의 상이함이 되기 위해서는 통치수단의 철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재한 신호들

○...의 향취를 만끽하는 황산의 오후, 이 평화로운에 잔치를 끼고 있는 젊은 비명소리 크리나클리의 정적을 풍만하게 만든다.

비명소리를 주저해 보니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쾅쾅 울려 울림을 만들고 있는 것. 넓은 캠퍼스를 고속도로처럼 쾅쾅 달리는 차와 비명향교를 가르쳐 보니 이에는 황산에도 신호들이 선전해 있다.

○...지 부추진위에 그렸던 이회로 찾고 싶어서는 황산이 대한민국의 최인(善言)때문에 대위 있다고 있다고.

사연인숙, 자작곡그린빛

계 진행되면 공사장을 지나 다 선로이탈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 그래서 과거엔 열차안은 믿을 수 있었지만 이젠 열차마저 배설을 하니 저같이 신 한국으로 가는 지... 쾅쾅... ○...꽃피는 봄에 학원으로 돌아오는 휴산이 있어 휴산들의 열광적 비소 가 시작하고. 사연인숙 제책서이라는 지 이름을 걸머진 휴산이들이 어떻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대학원에도 감동해 복복공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있는 사립대학의 필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사립대학의 부등분과 교육 1명만 확보한 채 신입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등록금 결정과정도 최근에는 발언권과 기회권, 처징권 의외에서 담합형태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형의에서 유리하게 부르는 것이 그대로 다뤄질지 등불급인상이 되어 있다.

현행 대학총장 선출방식

○88년...공공자율화추진, 리우총장직선제가 보편화 되었다. 이는 교수들이 선거권을 갖고 직접 총장후보추진을 선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사립대학들의 총장선출 방식은 교수직선후 재단이 임명하는 50%, 재단이 임명하는 35%, 재단이 임명후 교수회의의 추천이 4.8%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총장직선제는 '합법'이라 해서 이 임명에 갖게 개입된 대학총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볼 수 있다.

총장직선제는 그 자체로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지난 92년 12월 11일 41개 대학의 총 학생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교수만의 선거, 파벌형성으로 인한 폐해 극심

학생·직원 참여 형태 적극적 검토를

교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현행 대학총장 선출방식

○88년...공공자율화추진, 리우총장직선제가 보편화 되었다. 이는 교수들이 선거권을 갖고 직접 총장후보추진을 선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사립대학들의 총장선출 방식은 교수직선후 재단이 임명하는 50%, 재단이 임명하는 35%, 재단이 임명후 교수회의의 추천이 4.8%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총장직선제는 '합법'이라 해서 이 임명에 갖게 개입된 대학총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볼 수 있다.

총장직선제는 그 자체로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지난 92년 12월 11일 41개 대학의 총 학생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비둘기협판

이 광고란은 위대하우들의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항상 비둘기협판을 이용해 주세요.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범

■금연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내 대학 중 식당내에서 흡연을 하는 학교는 외대 뿐입니다. 30대 학생식당은 외대 7곳이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라는 많은 학우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식당내에서 미음대로 흡연을 하거나 식탁위에 흡연을 썩어 끼기까지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우들의 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외대 학생의 건강과 식탁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4월 1일(목)부터 식당내에서 외대 금연입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식탁은 스스로 치웁니다.

<식당 자치 위원회>

신입부원 모집

대문, 단소, 거문고, 가야금, 피리, 해금, 민요, 산조 가르쳐 줍니다. 사전 실력있는 사람도 됩니다. 피리배우는 학생에게는 매일 술제공 해드립니다. 연락처는 학생회장 4층 (Tel: 961-4574)

<일소리>

신입부원 모집

저희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학생회과 4층에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KUSA>

결혼을 축하합니다

독일어과 88학번 조진일, 김희영의 하모니를 축하하며, 항상 행복이 같이 하기를.

<88 동기들이>

신입회원 모집과 신입생 오리엔트

때: 3월 31일(수) 늦은 5시 30분
곳: 대강당 <외대 연극회>

신입생 환영회

때: 3월 30일(화) 늦은 5시
곳: 1301
인전: 서울여대와 함께 4월 2일(목) M.T. 가요 <I.V.F.>

총총 M.T. 갑니다.

때: 4월 2일(목) 늦은 2시
곳: 파문으로 오세요 <스펠렌어과>

향산골

■찾고 있습니다

3월 19일(금) 분산한 반지(14K)를 어디에 찾고 있습니다.

3월 23일(화) 학생회과 1층 여자 화장실 세면대위에 놓여져 있던 시계를 찾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학보사 학생기자실로 가져다 주세요.

<주요친하는 비둘기>

제5회 한국외대 허계 하학 연수 운영 요점 모집

본 학계 연수는 학생자치기구 대·생·협에서 매년 허계 방학 동안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93년도 본 연수를 운영할 운영요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외대 용인 캠퍼스 90~92학번

모집 기간: 4월 6일(화)~8일 6일(목)

선발 기준: 성실·책임감, 어학 연수 경험자 우대, 컴퓨터 혹은 영타 가능, 영어(문어, 구어) 가능자, 행사 기획 운영 경험자, 의사학과 관계없이 어학연수 운영에 경험을 쌓고 싶은 학우

선발된 운영 요원은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연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무료입니다.

면접: 3월 29일(화)~4월 5일(월) 매일 늦은 5시 30분 대·생·협 연수국 연락처: (0335)30-4153 <대학생활 협동조합>

강습회 합니다

종말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때: 4월 6일(화)~9일(금) 늦은 6시~7시 30분
곳: 홍윤방 <홍윤>

신입생 맞이 영화 상영

93년 신입생 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이 땅의 울버는 민중영성미술을 창작하는 남부리 영성에서 제작한 16mm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을 4월 7일(화)~8일(수) 양일간에 걸쳐 자택 강당에서 상영합니다.

특이 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 연구회>

독도 의문수비대 창설 40주년 기념 독도 증합 영상제

슬라이드, 사진, 코지도, 비디오, 탁본을 보여드립니다.

곳: 학생회과 1층 <4월 2일(목) >

때: 3월 29일(화)~4월 2일(목)

<영토문제연구모임 독도 문제 연구회>

동문회

(이문)

영동

때: 4월 2일(목) 늦은 5시
곳: 학생회과

□공연평-한씨 연대기를 보고

연극의 '교육'과 '재미' 두 측면을 모두 충족시켜

"거짓과 모자라지만..." 성공적인 공연을 거두었고 이번 외대 연극회의 제 48회 정기공연인 신인상 황석영의 '한씨연대기'의 신장(신)에 밝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평을 얻고보니 대외의 반응은 김은희의 반듯한 '한씨연대기' 보다는 구구한 것을 수 없었다.

외대 연극회의 이번 작업은 수평에서 벗어나고자 못하고 있는 기존 동등한 연극의 메카니즘에서 벗어나 구구한 것은 뛰어난 작품이었다.

주인공 한영덕의 일대기를 통해 분단의 비극을 보다 가깝게 전달

"분할계 획기를 성공시켜 브레히트 사사자의 우리들의 소화를 이루었다."

특히 의사, 군인, 정치 관계 등의 특유의 말투와 몸짓(에스투사시)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몸짓을 연기자로 하여금 표현하게 함으로써 관객을 소외시켜 극의 이해를 촉진시킨 것은 뛰어난 시도였다. 이번 공연에서 흥명의 연기자외의 고은 연기자도 훌륭한 연기를 통한 연극의 고도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런 '한씨연대기'는 주인공 한영덕의 일대기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민족수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외대 연극회의 이번 공연을 통해 보다 가깝게 분단의 비극을 전달했으며 연극의 '교육'과 '재미' 두 측면을 모두 충족시켜 주었다.

외대 연극회가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이번 공연의 성과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기를 바란다. 칭찬할 수 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복적, 복적, 복적!!

지난 21일(일) 양동성당에서는 단식농성자 14명을 비롯한 제적생, 재학생 4백여명이 제적생 전향복직을 위한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훈성 기자>

투고 글을 기다립니다

자격: 교수, 직원, 학생 등등 외대의 모든 구성원

분화면(12면) - 문예란

서평, 연극평, 영화평, 공연평, 수필, 기행문, 편지글, 시·소설

(소재는 자유입니다.)

원고예수: 8~12매

□편지글-봄기운이 완연한 교정을 그리며 외대인에게

"용기 잃지 말고 스스로의 시간을 보람있게 설계하라"

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새학기가 시작되고 활기찬 학우들의 모습에서 봄이 찾아 왔음을 느낄 수 있는 이른봄 교정을 상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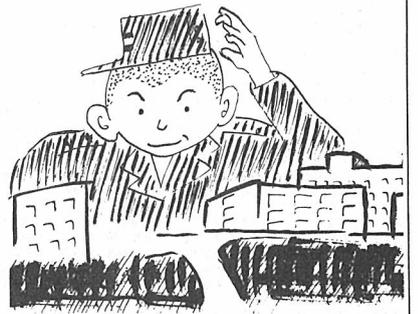
멀리 떨어져 공부에 충실하고 있는 내지신에게 더욱더 교정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생활을 할 때에는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이 교정 구석 구석 어느곳에서나 추억거리가 되고 있다고 할까요.

93학번 신입생들에게 선배로서

첫째 독서는 전공·교양을 물론하고 폭넓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라 하는 것.

둘째 공부,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전공에 충실하려는 것. 특히 우리 학교와 같은 인기, 비인기 학과가 뚜렷이 구분되어지는 특색으로 인해 자칫 전공에 소홀해지기 쉬운 편에 어느 과이든 전공에 일단 충실하고 그 다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라는 것.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않은 일이지만, 전공을 소홀히하면 결국은 대학생활 자체에 영혼을 빼앗겨 있는 우레가 되기



대학생활을 보람있게 하고자 하거든 독서와 공부 그리고 우정에 충실해야

멋지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아직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곧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남학우들, 그리고 지난 2년동안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나에게 일게 모르게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이라도 전해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때문이다.

셋째 우정. 이는 대인관계를 폭넓게 하라는 것이다. 남자를 물론하고 여과 가치관을 가진, 그래도 지성을 가진 젊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사람을 사귀라는 것이다.

이러까지 기억하고 있는 교수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 많은 도움으로 되었고 지금도 그리고 있음을 확실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남학우라면 누구에게나 절망들이 되고 있는 군복무.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졸업이 어릴 수 없는 절망이아는 많은 국방의 의사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입대전에는 예비군, 복학생 형님

들이 별것 아닌것처럼 여겨졌는데 이등병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깃털이 나갔을때의 입장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부러운 존재로 변해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보람있게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군 26개월이라는 시간이 스스로의 인생과정에서 지루하지 않고 연속선상에 의미있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은 훈련소 생활을 거쳐 지금의 자대에서 어느정도 몸을 잘 컨트롤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쉽지않은 일였음을 인정하며 또한 한 시간 동안 알게 되든 모르든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에 입대한 남학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입대하면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조금 빨리 깨닫고 인식하여 결코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스스로의 시간을

보람있게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군 26개월이라는 시간이 스스로의 인생과정에서 지루하지 않고 연속선상에 의미있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나서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앞을 내다보면 아직도 원연의 그날은 가까이 하지만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으며 생활하십시오.

비내리바에 찾아들 봄을 마음속 깊이 그리며 투신하여 세비라는 글을 미칠까 합니다.

1993. 3. 14
이립아과 90학번 서두만

□수필-새나기의 대학 일기

창조적 정신, 한달간 대학생활의 교훈

2월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오니 입학식이 없었다. "이 학교는 입학식이 없다"는 친구들의 말. 그래서 장부라며 "입학식 안하고 수업 들어가"는 열정적인 학교가 또 어디 있겠나?" 후에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입학식에 대한 거부감은 신배들과 동기들로 인해 세세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맛이러라. 도서관에, 그것도 아침 일찍 5시가 지나 꾸벅꾸벅 졸면서 잠에서 나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먼, 지난 1년의 이슬함이 가슴 속에 서 꿈틀꿈틀 일어나 계속의 그림에 파묻혀있던 많은 두눈으로 하여금 창밖까지를 찾아보게 한다. 뜨거운

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시원하다. "가자!" 아, 오늘도 집에 가기가 힘들다. "야, 무슨 부" 경제와/ 우리는 졸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애증이 애증이 되고 있다. 행들은 아마 경상도 사람이리라. '애증'을 '애정'이라 잘못 발음하며 오늘

는 듯 했고, 무언가 뚜렷이 제시되는 것도 없다. '입시병'이 전문 용어(?)가 아니다. 실감은 날까? 새로운, 신생활이 있는 대학생활, 고등학교와 똑같은 수업방식-교수님은 뭘 고민하시는 거야- 졸음은 수업시간...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새롭게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내 통성 중에 수필이라고 있는데 그 내가 말하진, 졸음을 어떻게 보낼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었어.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외대는 운동장이 어디냐?' 그런 어린 생각이 한달이 지나가는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일종의 체념일 수도 있고 분기가 맞았을 수도 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은 행들의 미스한 인정이면 말 한 마디에서, 순간순간 부딪치는 동기들과의 만남에서, 조용히 쫓기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학회도, 동아리도, 복지시설도 부족해 보였다. 아마도 꿈이 무지무지한

도 침 잠질 풀리며 또 다시 이해를 찾아 나선다. '왜 행들은 저러지도 않는거야' 슬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서도 우리 이해들은 무언가를 갈구한다. 그 갈구의 대상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명백한 학문에 대한 맹미 일지도 못하면서 학문에 대한 지극(?)한 갈망도 어느새 저서 있어

지조있는 여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거였다.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탐구의 정신이 아닌 창조적 정신-대학문화의 창조, 소중한 친구의 창조, 과분하기의 창조-, 이것이 한달동안 겨우 배운 교훈이었어. 친구야/ 우리 친구들 저런의 거실, 조국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멋지게 말이야.

술로 얼룩진 시간속에서 애정이 애증이 되고 만다

행기가 넘쳐 누군가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쳐다 보기도 하며,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환한 얼굴의 맑은 두 눈일까?

근대 이게 웬일인가? "방직아, 요즘 생활어때"라는 행들의 말, 묻는 것까진 좋다. 애정의 표현이냐

술로 얼룩진 시간속에서 애정이 애증이 되고 만다

이것은 명백한 학문에 대한 맹미 일지도 못하면서 학문에 대한 지극(?)한 갈망도 어느새 저서 있어

(자한은 심경·경제)

편지자율권을 보장하라

전대기원 서울지역 동부지부

언제 까지 이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대학 언론한 달 증지하라

한계 권대신문사의 상황

사건의 발단은 광고문에서 시작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학교측의 학내언론장악 수단으로 변화했습니다. 현재 학내에 번지고 있는 등롱등롱상상들이라든지 그밖의 제단비리에 대한 여론화를 막기 위해서 학교측은 권대신문의 발행을 적극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법규정전입니다

지금 학교측은 1989년 편지자율권법령으로 인해서 사문화된 당시의 규정집을 개악하여 이것을 지원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권대신문사 규정집으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었던 것들을 묵살하고 학교의 직원은 편지규정만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편지자율권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악법은 개쳐야하고 악법규정집은 고쳐져야 합니다.

다른 학우의 이야기까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와 조금 떨어진 지역의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역사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부흥하는 바로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또한 조국의 민주화를 방해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권국의 대학 언론인들이 총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치와 가위로 그들을 물어 베십시오.